

유럽의 국제물류 중심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컨테이너 6300만TEU 처리 … 경제위기 타개책 집중투자

네덜란드의 국제 물류기지화 성공사례가 주목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Dutch Disease 극복을 위한 국가개방정책에서 물류 기지화를 추진했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 성장침체, 산업경쟁력 상실로 경제위기에 처해 있었고 유가상승에 따른 소비, 재정지출 증가 등 경기상승세가 나타났으나 이후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재정적자, 고임금, 노사갈등으로 산업경쟁력 상실(Dutch Disease)의 어려움이 닥쳐왔다.

1981-8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실업률 12%, 물가상승률 6.2%의 최악의 경제조건에서 1983년부터 범국가적 개방 및 기업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1982년에는 사회보장 감축, 임금억제를 통한 경제회복 및 고용창출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항만·공항 및 내륙연계교통망 등 물류인프라의 구축을 꾀하고 로테르담항을 유럽 최대의 항만으로 키워 전형적 제3세대 항만으로 성장시켰다. 로테르담항은 2000년 컨테이너 처리실적 6300만TEU로 세계 5위, 유럽1위의 최대 항만으로 꼽히고 있다.



네덜란드의 스키폴공항은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공항이라고 Business Traveller이 칭할 정도이며 여객 수송 실적 4000만명으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항만·공항은 유럽 각지의 항구·주요도시와 연결돼 철도, 운하로 거미줄 같은 연계 운송망이 구축돼 있다.

또 유럽 최고수준의 외국인투자·기업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국기업 국제경쟁력 제고 및 과감한 대외개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장기적인 비전 아래 급진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인력·정책·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투자진흥청(NFIA)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 마케팅을 꾀하며 정보 서비스, 개별기업 대상의 Fact Finding Trip도 주선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화되고 시장지향적인 정부의 물류정책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간의 협의(Public-Private Partnership) 아래 입지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물류인프라·단지 조성계획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유럽 물류기지를 적극 유치하고, 국제물류협의회(Holland Int'l Distribution Council)를 통한 전문적 물류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럽물류센터 설립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Total Service

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 물류 중심기지화 추진결과 네덜란드는 유럽 최대의 물류 중심지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로테르담항은 유럽 수입물량의 30%, 수출물량의 65%를 취급하는 명실상부한 유럽의 관문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세계화 기업의 유럽물류기지(European Distribution Center) 유치에 성공해 미국기업 중 유럽에 물류센터를 설립한 총 611사의 57%인 348사, 아시아기업 총 344사의 56%인 193사를 네덜란드에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

네덜란드의 경제규모는 GDP 3981억달러, 1인당 GDP 2만5169달러이며, 2000년 기준 무역규모는 3920억달러로 수출 2000억달러, 수입 1920억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7/ 08 >